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전주교광주대교구청에서 '제1회 광주가톨릭 비움·나눔 페스티벌'이 열린다. 하석원 작 '거꾸로 산 집'(왼쪽)과, 김도영 작 '바람의 숲 그리고 시간의 기억'. <광주가톨릭미술가회 제공>

광주박물관 서화실, 남도 문인화 공간으로

소치 허련 등 조선 말기부터 현대까지 회화 29점 전시



새로 개편된 국립광주박물관 서화실 전경

국립광주박물관이 전시관 2층 서화실을 개편, 남도 문인화 정수를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다. 새로운 서화실은 '새로 만난 남도의 그림'을 주제로, 박물관이 지금까지 구입한 서화 유물 가운데 미공개 작품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소치 허련(1808-1893)을 비롯해 조선 말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호남 화단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회화 29점을 선보인다.



소치 허련 '서화첩'

허련은 조선 말기 남종화 맥을 잇는 화가로, 손자 대에 이르기까지 호남 지역에서 전통회화 일가를 이뤘다. 이번 개편에서는 '육법묘운' 화첩과 '서화첩', '목모란도병풍'이 전시된다. 허련의 장남 미산 허은(1831-1865)은 그림에 뛰어난 소질을 보였으나 35세 나이에 요절한 인물이다. 허은의 호 '미산'은 10여년 후 동생 허형(1862-1938)이 물려받아, 각각 큰 미산(大米山), 작은 미산(小米山)으로 부르기도 한다. 허은의 작품은 수량이 많지 않아 희귀성이 높다. 전시실에는 기묘한 바위와 소나무를 그린 '괴석송도'가 공개된다. 허련의 손자이며 허형의 아들인 남봉 허건(1908-1987)은 조선미술전람회 10여 차례 입선하며 활발히 활동했다. 남종문인화의 요소를 충실히 따르면서도 실경 사생의 면모를 보이는 '산수도'도 소개된다. 허련의 일가인 의재 허백련(1891-1977)의 '산수도'도 만날 수 있다. 허백련은 허형에게 그림을 배웠으며 1922년 제1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1등 없는 2등상을 받으며 전통화단에 등장했다. 안개 경치를 그린 '산수도'는 중국 전통 화법을 독자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또 허련을 사사한 해남 출신 미방 김익로(1845-1915)가 남긴 '괴석도'를 전시한다. 이 작품은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바위 그림으로, 시·서·화를 갖춘 김익로의 선비 정신을 엿볼 수 있다.

그밖에 화순 출신 문인화가 사호 송수면(1847-1916) 작품 '목죽도'도 배치한다. 송수면은 대나무 그림에 능했으며 조선 중기 전통 화풍을 고수했다. '목죽도'는 먹 농담을 달리하며 다양한 형태로 대나무를 표현했다. 문의 062-570-7034.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시민 위로하는 문화축제 연다

24~28일 '광주가톨릭 비움·나눔 페스티벌-하늘, 땅...바람'

교구청 전체 본전시·인문학 강좌·뮤지컬 공연·미술체험 등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자리한 전주교광주대교구청 부지는 도심 속 여유를 선사하는 공간이다. 곳곳에 심어진 푸른 나무와 어우러진 고풍스런 서양식 건물은 '검은 사제들', '화려한 휴가' 등 영화 단골 촬영지이기도 하다.

최근 각종 문화행사를 통해 지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는 전주교광주대교구가 24~28일 '제1회 광주가톨릭 비움·나눔 페스티벌-하늘, 땅...바람'을 연다.

광주대교구가 주최하고 광주가톨릭미술가회가 주관, 광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문화예술 축제로서 아픈 역사를 지닌 광주시민들에게 위안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총 3억원을 투입, 교구청 건물 전체를 활용해 본전시, 특별전, 인문학 강좌, 뮤지컬공연, 미술체험 등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현재 가톨릭평생교육원 본관 건물로 쓰이고 있는 헨리관에서는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전'이 열린다. 전국 14개 교구 소속 회원 3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전시다. 330㎡(100평) 규모 강의실, 복도 등에 다양한 색채로 종교와 인간을 이야기하는 작품이 배치될 예정이다.

현대미술작가 30명이 참여하는 '현대미술전'은 전시 공간이 눈에 띈다. 지난 4월 등록문화재 제681호로 지정된 브레디관을 비롯해 헨리관 지하 공간, 야외 산책로에서 역사성과 장소성에 기반을 둔 작품을 선보인다.

1961년 대건신학교 기숙사로 건립된 브레디관은 신학교의 초성인 'S'자 모양 건물 배치가 특징이다. 사제 숙소 30여개와 세 영역이 만나는 가운데 부분에는 공동화장실, 세면실, 휴게실 등이 있어 옛 사제들의 공동 생활양식을 엿볼 수 있다. 공간이 좁아 1997년 나주로 신학교와 기숙사가 이전한 이후 비어있는 상태로 실내

재건축을 앞두고 있다.

작가들은 1명씩 방을 배치받아 회화, 사진, 설치 작품으로 내부를 꾸민다.

와인저장고 등으로 쓰였지만 지금은 빈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는 헨리관 지하는 장소 특성을 살려 미디어아트로 채워진다. 빨간 벽돌건물에 배관 파이프들이 노출된 미로와 같은 공간으로, 지난해 권승찬 작가가 내놓은 작품을 설치해 주목받았다.

또 같은 장소에서 특별전으로 광주 작가가 참여하는 '아트마켓'전이 열린다. 김영일, 김영태, 김종경, 송필용, 오광섭, 전현숙, 정운학, 최재영, 한희원 등 청년작가부터 중견 작가까지 30여명이 참여해 부담없는 가격으로 작품을 판매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현대미술작품이 설치되는 헨리관 지하공간.

전남문화재단 호남권 '지역문화관 지원사업' 공모

전남문화관광재단이 6월 2일까지 호남권(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문화관 활성화 위해 '지역문화관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사업은 전문인력 지원과 특성화프로그램 지원으로 나뉘며 2개 분야에 각각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문화관은 6월2일까지 이메일(hera616@jact.or.kr, 우편·방문 접수 불가)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문화진흥법 제2조 및 제16조에 따른 공·사립 문화관으로, 현재 운영 중이며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지역 문화관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jact.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 061-280-5824.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무동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Shin Yang Park Hotel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